

# 전시디자인의 변천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 독립기념관의 시기별 전시변화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ransition Process and factor of Exhibition Design

- Based on the Exhibition's Transition in the Independence Hall -

권순관\* / Kwon, Soon-Kwan

### Abstract

Traditionally exhibition design as been restricted to architectural, interior, and lighting design, but recently it has begun to overlap into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art. Exhibition design also increasingly involves the application of film, fashion, and the new media. In the past, exhibits were arranged and displayed for the visitor to view directly, but with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exhibit media a connection has been created between the exhibit and the visitor. However exhibition design has reached the limits of continuous growth without background theory, when now it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museum's activa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exhibition's design.

Exhibition design has developed and grown rapidly since the Taejeon Expo in 1993, but it is a difficult development without a theoretical structure. The flow of exhibition design must be systemized, as the systemization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exhibition design has not yet been achieved.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arrangement of exhibition design flow, and to investigate the variation factors in the transition process of exhibition design and exhibit medium development, based on the 18 year history of the Independence Hall that introduced the first systematic planning of an exhibition in 1987.

**키워드** : 전시디자인, 전시매체, 변천과정, 체계화, 독립기념관

**Keywords** : Exhibition design, Exhibit medium, Transition process, Independence hall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의 전시디자인은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조명디자인 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환경예술, 퍼포먼스 그리고 설치미술 등과 같은 예술적운동과 많은 부분이 접목 되고 있으며, 점점 더 영화, 광고, 패션 그리고 뉴미디어 등과도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전시디자인은 창조적인 표현을 가진 영역이다. 과거 단순하게 전시물을 진열하여 관람자에게 소개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전시매체를 통해 관람자와 전시물과의 만남을 연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므로 전시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 이후 전시디자인은 질적, 양적 팽창 속에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종합적인 학술연구가 병행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현재 전시디자인은 전시매체 및 공간분석에 관한 분야별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전시디자인의 이론적 정립을 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선행되어야할 전시디자인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1987년 국내최초로<sup>1)</sup> 체계적인 전시계획을 도입하여 개관한 독립기념관<sup>2)</sup>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독립기념관은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 전후로 가장 전시디자인의 발전 시기였던 80년 말, 90년, 2000년까지 7개 전시관이 한차례씩 리노베이션을 하였으므로 세 시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여러 개의 다른 박물관을 시기별로 분석하는 것은 건립 목적, 운영방침 그리고 예산 등이 서로 달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비교분석이 어렵다. 반면 독립기념관은 건립초의 기본지침의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변천해왔기에 일관된 연구가 가능

\* 정희원, (주)카파디자인그룹 소장,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로

1)서상우,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7, p.157

2)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 총 5,358평(17,680㎡)

하다. 셋째, 국립박물관 중 독립기념관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전시기법의 변화가 타 전시관들보다 다양하여 전시디자인 연구에서는 독특하고 귀중한 연구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기념관의 시기별 전시변화를 중심으로 전시디자인의 변천과정과 그에 따른 요인을 분석하고 독립기념관의 전시흐름을 파악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시디자인의 변천을 읽어볼 수 있는 자료정리와 향후 독립기념관의 전시 계획 시 참고할 제언을 하는데 있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독립기념관은 시기적으로 개관전시와 재개관(리노베이션)전시로 구분할 수 있다. 개관시점인 1987년을 제1기, 1995년부터 1997년까지를 제2기, 마지막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제3기로 구분한다.

연구방법은 독립기념관에서 발간한 공식적인 문헌자료를 토대로 시기별, 관별의 건립배경, 전시물변화, 그리고 전시매체의 변화 등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직접적인 설문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가보훈처 등에서 조사한 관람객 설문조사를 적극 활용하므로 관람객수의 변화 및 관람객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전시디자인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자료를 근거로 개관시기 평면도와 개관후의 평면도를 통해 동선체계 및 전시물 위치 변화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시기별·관별 변화를 정리한다.

## 2. 독립기념관의 전시변천과정

### 2.1. 건립역사

독립기념관은 19세기 일본과 서구열강의 문호개방 압력 속에 나라의 국권을 지키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순국선열들의 투쟁정신을 현대적 개념으로 계승하고 가시화하고 있는 정신적 교육의 장소로 건립되었으며, 주요전시범위는 1875년에 발생한 언양호사건부터 8.15광복까지를 전시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기본방향들은 여러 차례 리노베이션에서도 일관되게 진행되어 동일한 내용 속에서 시대별 전시연출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효과적이다.

독립기념관의 건립역사 중 전시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한국전쟁 이후 독립기념관의 건립문제를 다루고 있는 『민족박물관설립계획안』<sup>3)</sup>이다. 이 계획안에서 주목할

3)1974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함. 당시의 계획안은 여의도 2만여 평의 대지에 건평 1만평예정으로 민족기념관, 문화관, 생활관, 호국관, 선열관, 독립기념관, 6.25동란관, 5.16혁명관, 새마을관, 미래관 등 총 10개관으로 구성된다. 본 계획은 1980년 두 개 지역으로 나뉘어 각기 따로 계획되어 지게 된다. 역사박물관, 고고박물관, 미술박물관, 민속박물관, 동양박물관, 전사박물관은 동물원이 철거된 창경원에 설립되는 안과 역사관, 전사박물관, 위인선열관은 여의도에 설립하는 안으로 구분되게 된다.

만한 것은 5.16혁명관과 새마을운동관이다. 박정희정부의 정권장악과 업적이 함께 들어간 것은 기념관의 건립이 정부의 홍보공간으로 여겨졌던 것을 엿 볼 수 있다. 둘째는 건립배경이다. 본격적인 건립의 계기는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다. 이런 사회적 이슈는 지금까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독립기념관의 전시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독립기념관의 시기를 단순히 재개관된 시기만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재개관의 배경을 이룬 역사적 기간부터 간주하여 제1기(1982년-1987년), 제2기(1991년-1997년) 그리고 제3기(1999년-2004년)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는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던 1982년부터 개관해인 1987년까지를 말하고 있으며, 제2기는 본격적인 교체보완계획수립해인 1991년부터 첫 번째로 재개관을 한 3·1운동관(제4전시관)과함께 개관10주년이 된 1997년까지를 말하며, 제3기는 1999년 독립전쟁관(제5전시관)재개관부터 2004년 민족통관(제1전시관)까지를 규정한다.

### 2.2. 제1기 : 개관전시(1982년-1987년)

개관당시 독립기념관의 전시관별 특성을 몇 가지 보면 제1전시관은 ‘장엄하고 중후한 공간’을 추구했으며, 제3전시관은 일체침략과 국권강탈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암울한 분위기’를 연출목표로 삼고 있다. 제1기의 독립기념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민족의 국난과 시련, 이에 대한 불굴의 항쟁 그리고 격동의 50, 60년대를 넘어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습을 7개 전시관 16개실(영역)로 나누어 통사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각 전시관은 크게 세 개의 영역<표 1>으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다. 상징성을 부여하는 대공간, 각론적이야기를 다룬 소공간, 그리고 심층연구를 할 수 있는 개별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개관 시 공간별 전시연출계획지침

구분	대 공간	소 공간	개별 공간
개념	공간의 상징을 보여주는 상징적 대 주제공간	독립적주제,부분적상징을 보여주는 공간	각 주제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공간
매체	대형유물, 상징기념물	디오라마, 복제물, 영상제작물	사진,도표,실물전시,쇼케이스 및 벽면전시활용

이런 점에서 볼 때 1987년 개관한 독립기념관의 전시방법은 당시 다른 박물관(주로 국립박물관)의 유물위주 전시방법과 비교해 볼 때 체계적인 전시계획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8년에 편찬된 『독립기념관 건립사』<sup>4)</sup>의 전시편을 보면

4)1988년 발간된 <독립기념관 건립사> 388p, 『독립기념관의 전시는 기존의 다른 전시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유물중심의 평면적, 나열적 전시

독립기념관을 최고의 기념관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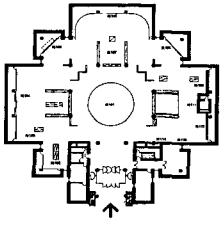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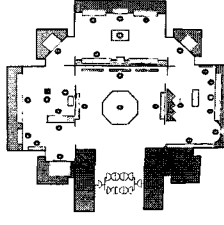
### 2.3. 제2기 : 재개관전시(1995년-1997년)

제2기는 본격적인 전시교체작업을 진행한 시기이다. 7개동으로 구성된 독립기념관의 전시관 5교체사업은 1991년 12월 독립기념관 전시교체보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추진방향은 예산과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제일 규모가 작은 제4전시관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제3전시관, 제2전시관, 제5전시관, 제6전시관, 제1전시관 그리고 제7전시관 순으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향후 제1전시관과 제7전시관의 교체순서는 바뀌게 된다.

#### (1) 제4전시관(3·1운동관)

3·1운동관이라는 특수한 목적의 전시관으로서 전반적인 흐름이나 전시내용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만 3·1운동이라는 정신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본 전시관의 특징은 동선보다는 전시매체(방법)부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제4전시관의 개관전시와 재개관전시의 비교

구분	개관시기(1987년)	재개관시기(1994년)	분 석
평면			재개관전시의 동선은 좌측 동선이 유지되고 대공간의 상징물도 보존되고 있다.
주요 전시 내용	-3·1운동정신상 -독립선언·만세시위 -3·1운동 상황전광판 -3·1운동도 -제암리 집단학살 모형 -서대문 지하감방 -일본교과서 왜곡	-3·1운동정신상 -1910년 생활상 매직비전 -서대문형무소 정문 -3·1운동 전국상황도(LED) -등사모형 -장터문체 시위모형 -유관순옥중시위모형(음향, 조명추가)	자료위주의 에서 사실적인 접근을 위한 전시 방법들이 도입되었으며, 전시내용들이 다변화되었다.
주요 매체	군상, 모형, 패널, 초대형동양화 기록화, 유물전시	LED상황관, 서대문형무소정문 실사이즈모형, 매직비전, 모형, 정보검색, 유관순옥중모형(실사이즈) 등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시매체 도입

를 지양하고, 전시매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전시효과를 극대화 하며.....진품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에 의해 역사적 사실이나 현장을 재현함으로써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역사적사실은 유물이나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래픽, 모형,기록화,입체지도,동상,조각 등을 통해 상징성과 기념성을 부각하며, 슬라이드, VTR,멀티비전, 영화 등의 전자화기법을 도입하여 전시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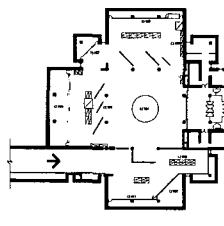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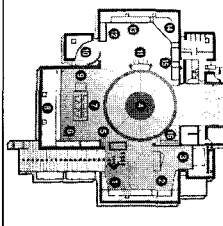
5)제4전시관(1995년 5월17일 재개관),제3전시관(1996년 5월14일), 제2전시관(1997년 5월27일), 제5전시관(1999년 7월16일), 제6전시관(2001년 6월 20일), 제7전시관(2002년 5월30일), 제1전시관(2004년 7월24일)

가장 큰 변화는 평면적인 전시매체에서 입체적인 매체 활용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지루한 나열식의 전시에서 벗어나 실사이즈모형이나, 정보검색, 영상(매직비전), 음향효과 등의 전달매체를 도입하여 관람객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 (2) 제3전시관(일제침략관)

제3전시관은 다른 전시관보다 사실적인 전시방법(고문장면모형 등)을 도입하여 개관 당시부터 관람객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었으며, 특히 일본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4전시관 교체이후 교체내용이 미진하다, 전시내용이 어렵다, 첨단매체들이 부족하다 등의 비판이 일기 시작하면서 제3전시관의 교체는 보다 첨단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교체를 시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된다.

<표 3> 제3전시관의 개관전시와 재개관전시의 비교

구분	개관시기(1987년)	재개관시기(1996년)	분 석
평면			동선은 개관전시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대공간의 상징물이 보완됨.
주요 전시 내용	-침략책동과 무력침략 -명성왕후시해장면(디오라마) -국권강탈 -고난극복의 한국인 상 -고문장면재현 -강제수탈 -영상실 -민족문화말살 등	-명성왕후시해장면(영상매체삽입) -애국지사호송장면 -고문장면 극적연출(음향,작동시스템) -고문체험의 집(신설) -징용,징병장면모형(모형신설) -한국인의 상(보완)	실적인 접근을 위한 전시 방법들이 도입되었으며, 전시내용의 순서와 추가·보완이 이루어졌다.
주요 매체	고문장면모형, 고문용벽판,패널,디오라마,실물전시,조각상,만행영화 등	매직글라스(특수영상-시해장면),작동모형,음향효과,고문체험세트,정보검색,모형 등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전시매체들이 도입

제4전시관 교체시기에도 '매직비전'이라는 영상매체를 도입하였듯이 제3전시관에서는 명성왕후시해장면코너가 단순 디오라마에서 '매직글라스'라는 특수유리를 사용하여 영상과 함께 설명되어 지도록 교체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고문장면모형에 신음소리나 작동모형을 도입하여 극사실적인 표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사진으로만 전시하였던 징용·징병 및 정신대코너들은 모형과 다큐멘터리형식의 영상으로 바꾸었으며, 고문체험의 장을 도입하여 일제침략당시의 참상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교체작업이 진행되었다.

#### (3) 제2전시관(근대민족운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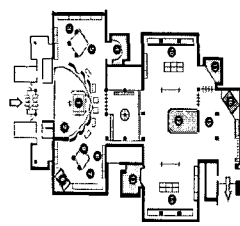
기존의 제2전시관은 전시내용이 평면적이고 산만하다는 평

가를 받고 있었기에 동적이고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전시관에서 국내최초로 시도되었던 Animatronics<sup>6)</sup>라는 작동모형을 도입하였다. 대한제국 당시의 대표되는 10명의사람(지식인, 학생, 농민, 의병, 해산군인, 관리, 상인, 중년여성, 여학생, 그리고 소년의병 등)이 등장하여 나라사랑의 마음을 표출하는 형식으로 실사이즈 인물모형들이 연결할 때 몸의 일부가 움직이고 동시에 분위기연출을 위해 박수소리나 청중들의 소리가 함께 가미되고 있다.

이는<sup>7)</sup> 공연적방법으로 일본의 박물관에서 80,90년대에 상당히 활성화된 전시전달방법이다.

<표 4> 제2전시관의 개관전시와 재개관전시 비교

구분	개관시기(1987년)	재개관시기(1997년)	분 석
평면			재개관 전시의 동선은 좌측동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공간의 상징물이 교체되었다.
주요 전시 내용	-개회기 풍물 -초지전포대 -위정척사 및 개화운동 -우금치전투 디오라마 -동학농민혁명운동 -13도 창의군 전투모형 -의병전쟁 전광판	-독립문축소모형(상징물/신설) -태극기코너 -구국의 물결(영상 및 음향) -동학농민군 무기류전시 -애국지사작동모형(신설/음향) -안중근의사 매직비전(신설) 등	자료위주의 내용전달에서 사실적인 접근을 위한 전시방법들이 도입되었으며, 전시내용들이 다 변화되었다.
주요 매체	원통형입체구조물, 디오라마, 영상, 모형, 실물전시, 사진, 슬라이드 등	작동모형, 음향효과, 매직비전, 상징조형물 등	시각적인 효과와 음향효과를 도입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매직비전’이 빠르게 여러 박물관에 설치된 것에 비해 2000년대까지 공연적기법은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제2전시관에서는 1994년도에 제4전시관에 도입되었던 매직비전을 ‘안중근코너’에 재도입을 하였고, 개관당시 인기가 있었던 ‘13도창의군 서울진공작전모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재개관의 틀을 잡게 된다. 또한 자주독립의 결의를 보여주는 대공간의 ‘독립문모형’은 개관당시(1987년) 전시되었던 ‘개화기풍물 복합구성’을 대체하게 된다. 제2전시관은 독립기념관 10주년해인 1997년에 재개관되는데, 그 사이 전시기술은 일반모

6) 마네킨에 구동장치를 부착하여 작동하도록 연출하는 기법

7) 공연적전시는 영화나 세트와 같은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극화된 연출법을 말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한 공간에 공간적 전시기법을 도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아이탬을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 연출된 공연물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움직이는 로봇이나, 멀티스크린영상 또는 매직비전 등 첨단매체들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형에서 기계장치가 들어간 작동모형시스템으로 변화되고, 단순영상이 매직비전 등의 특수영상매체로 발전하게 된다. 전시구성면에서도 많이 보여주기 식의 내용에서 탈피하므로 동선체계가 간결해지고, 전시콘텐츠의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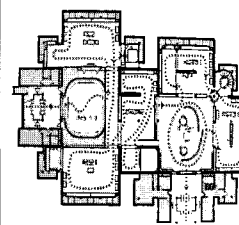
## 2.4. 제3기 : 재개관전시(2001년-현재)

### (1) 제5전시관(독립전쟁관)

제5전시관은 1999년 7월16일에 재개관하게 된다. 이 관의 가장 큰 특징은 특수매체의 사용보다는 전시내용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개관당시에 전시되었던 어문운동, 광주학생운동, 종교투쟁, 여성운동 등의 사회문화운동의 내용들이 빠지게 되고 독립운동관련 내용만을 다루는 전시관으로 개관하게 된다. 사회문화운동의 전시들은 2001년 6월20일에 재개관되는 제6전시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독립전쟁관에서는 첨단전시매체의 도입보다는 감성적측면을 고려한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 도입부에 있던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의사의 동상이 두 번째 대공간으로 이동하고 도입부는 독립전쟁의 시대로 여행하는 듯 공간계획을 제공하고 있다.

<표 5> 제5전시관의 개관전시와 재개관전시 비교

구분	개관시기(1987년)	재개관시기(1999년)	분 석
평면			재개관 전시의 동선은 개관전시에서 정리된 형태이며, 대공간의 상징물은 후면으로 이동 전시된다.
주요 전시 내용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의사 동상 -독립군의 활동, 수난, 전광판 -독립군전투 디오라마 -경제운동, 노동운동 등 -광주학생운동 디오라마 -종교운동, 어문운동, 민족운동 -체육, 문예운동, 운전기전시,	-독립전쟁재현디오라마 (실물크기/신설) -독립군전쟁상황도 (기복지도/LED) -독립군편성과 활동 -독립군의 수난 (청신리대첩, 조선의용군 명호군, 조선혁명당 등) -의열투쟁 및 의열단	자료위주의 내용전달에서 사실적인 접근을 위한 전시방법들이 도입되었다.
주요 매체	원통형입체구조물, 디오라마, 영상, 모형, 실물전시, 사진, 슬라이드 등	실물크기 대형디오라마세트, 매직비전, 멀티영상, 독립군회현장면 디오라마, 와이드필라, 실물전시 등	공간적연출방법(디오라마세트)의 등장

관람객들에게는 극적인 도입부의 연출로 차기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주게 된다. 제5전시관은 다른 전시관보다 가장 획기적인 공간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8)대중적인 기반이 약한 국가에서는 기념관들이 정치적 계도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광개토대왕비, 독립문, 3·1운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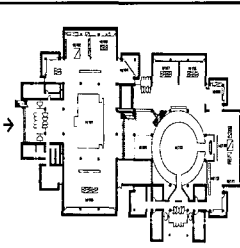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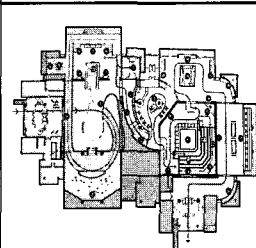
8) 서상우,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4, p.15

신상 등의 주입식 또는 권위적 상징물을 전면부에 내세운 제 2,3,4전시관에 비해 20세기 말에 재개관된 제5전시관은 기존의 상징물이 후면으로 이동하고 전면부에 재미와 흥미를 부여한 대형디오라마세트의 도입은 전시방법의 다양성을 보여준 동시에 관람객들을 위해 전시효과 높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 제6전시관(사회문화운동관)

21세기에 들어 개관된 제6전시관의 현대미를 보여준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전시관부터 도입부의 권위적인 상징조

<표 6> 제6전시관의 개관전시와 재개관전시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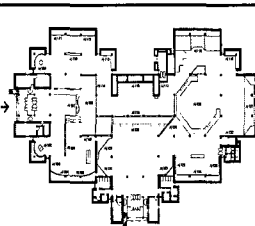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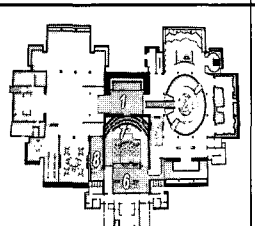
구분	개관시기(1987년)	재개관시기(2001년)	분 석
평면			강제 동선을 채택하여 전달효과를 높임. Pre-Show 영상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주요 전시 내용	-임시정부요인상 -미주,일본지역 동포사회 -중국,노림지역동포사회 -상해임시정부청사모형 -임시정부수립과 활동 -광복군의 조직과 활동 -임시정부의 환국 -광복의 환희	-어들을 넘어서(3면영상/신설) -일제의 침략과 민족말살정책 -국학수호운동(바닥전시 신설) -윤전기실물전시 -민족문화보존운동 -항일출판운동,체육운동, -민족예술운동,광주학생운동 -카페테리아(신설)	현대적인 디자인 채택과 카페테리아의 공간도입으로 단독 전시관의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매체	정부요인상,실물전시,쇼케이스,모형, 대형와이드칼라,육성방송,슬라이드 등	3면영상(Pre-Show),스카시패널,그래픽패널,바닥전시, 모형, 쇼케이스전시 등	바닥전시, 설치미술적 요소 등의 다변화된 매체활용

형물이 사라지면서 제6전시관에서도 상징물대신 전시관내용에 맞는 현대적인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사회문화운동 중 연륜운동을 상징화한 구조물은 도입부에서부터 전시동선과 함께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Pre-Show 영상관으로 연결된다. 제6전시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임시정부요인상은 제7전시관으로 이동하면서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운동을 특화시켜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정착하게 된다. 또한 본 전시관의 특징 중 하나는 후반부에 카페테리아를 설치 한 것이다. 그러나 카페테리아의 설치는 각 전시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서 제5전시관에 있었던 사회문화운동이 제6전시관으로 이동하면서 전시면적에 비해 전시내용이 적은 것을 대체하기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제6전시관에서 사용된 3면영상, 바닥전시, 전면쇼케이스 등의 전시매체, 동선체계 그리고 전시디자인은 이전에 교체된 전시관의 느낌에서 벗어나 확연히 다른 효과를 주고 있다.

(3) 제7전시관(대한민국임시정부관)

87년 개관당시 제7전시관의 주요내용은 1945년 광복이후부터 1986년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발전상을 보여준 전시로 개관되었다. 그러나 굴곡 많은 우리나라의 정치문제와 연관된 전시내용들이 많아 2002년, 재개관시기에는 광복이후 정부수립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및 국내외 독립운동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전시의 맥을 잡게 된다.

<표 7> 제7전시관의 개관전시와 재개관전시의 비교

구분	개관시기(1987년)	재개관시기(2002년)	분 석
평면			강제 동선으로 전달효과를 높였고. 기획전시와 정보검색공간을 신설
주요 전시 내용	-광복과 분단 -반탁운동과 정부수립 -50년대 사회상과 4.19 -2·3·4·5공화국 -농어촌근대화,새마을운동 -한강종합개발,국토개발 -이산가족찾기 -2000년대의 한국 -통일예의 염원 등	-정보검색공간(신설) -정부수립배경 -임시정부27년사 -만주,중국,일본지역의 독립운동 -상해임시거거리재현 -하나됨의 길 -한민족이 나아갈길 -통일의 길 등	현대적인 디자인 채택, 정치적인 근현대사의 전시 내용을 삭제함
주요 매체	임시정부요인상,실물전시,쇼케이스,리모형세트(실사이즈),화이트모형이드 등	임시정부요인상과 대규모영상, 거리모형세트(실사이즈),화이트모형 등	단순모형 전시에서 공간적 연출방법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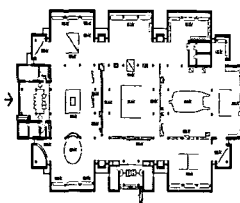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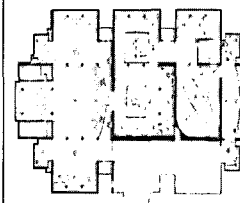
이런 문제로 인해 제6전시관과 동일하게 전시관의 규모에 비해 전시내용이 적어 기획전시공간과 정보검색공간 그리고 도입부의 대공간을 로비홀로 사용하는 공간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제7전시관은 특별한 매체의 활용보다는 사회문화운동관(제6전시관)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실사이즈의 상해거리재현, 임시정부요인상을 영상관과 접목시켜 연출하는 등의 9공간적전시 방법으로 관람객들에게 테마파크에서 느낄 수 있는 비밀상적인 체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제6전시관 도입부에 주변의 부가적인 연출 없이 상징물로만 설치되었던 '임시정부요인상(밀랍인형)'은 미디어시대인 오늘날에는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제7전시관 재개관 시 영상과의 접목을 통해 관람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9)공간적전시는 관람객들이 오감으로 전시공간에서 전시내용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전시기법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재현이라는 방법이 도입되어 관람객들에게 현실을 넘어 과거의 세계를 탐험하는 비밀상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모형보다는 무대세트와 같은 실물극기의 상황을 연출해야 한다/ 권순관, 엔터테인먼트의 관점에서 본 테마파크의 개념과 전시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전시디자인학회 Vol.1, 2004, p.30

(4) 제1전시관(민족전통관)

제1전시관의 재개관으로 1987년 개관된 후 7개관이 전부 한 번씩의 재개관을 하게 된다. 2000년도에 재개관된 제6,7전시관에 비해 제1전시관인 민족전통관은 전시매체의 변화가 거의없이 개관당시의 제1전시관의 전시구성이 그대로 계획된다. 첫 번째 대공간에 전시된 광개토대왕비, 두번째 대공간의 황룡사복원모형, 세번째 대공간에 위치한 거북선모형 등 각 공간의 대표전시물들이 개관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단지 국내최초로 복원되었던 익산 미륵사복원모형이 제1공간에서 제2공간으로 이동되는 것이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표 8> 제1전시관의 개관전시와 재개관전시의 비교

구분	개관시기(1987년)	재개관시기(2004년)	분 석
평면			동선의 체계가 강제동선을 채택하여 전달효과를 높였고.
주요 전시 내용	-광개토대왕비 -미륵사모형, 황룡사 복원모형, 고지도, 무용총 -선사시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발해, 고려, 조선 등 -거북선, 임진왜란	-고인돌 -무용총재현세트 -구·신석기부터 조선까지 -가야, 백제, 발해 등 -미륵사모형 -체험장소(신설)	주요 전시물은 개관시기와 동일하며, 전시연출을 강화하여 대형 전시물을 보조한다.
주요 매체	축소모형, 거북선모형, 고지도, 실물 크기의 광개토대왕릉비, 등	축소모형, 거북선모형, 고지도, 실물 크기의 광개토대왕릉비, PDP영상 등	전시매체의 변화보다는 리모델링 개념이 강화된다.

전반적으로 벽체의 사용보다는 개방적이었던 개관시보다 전시물들이 정확한 공간구획에 따라 전시되게 되므로 강제동선체계로 전시동선을 잡아주고 있다. 본 전시관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전시관후면부에 체험공간을 만든 것이다. 제1전시관의 재개관공사는 단순 리모델링층면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선의 변화나 매체의 변화없이 오래된 쇼케이스의 신형화 및 전시물의 진열방식 등이 주되게 진행되었다.

3. 변천과정의 변화요인 고찰

3.1. 전시매체와 기법의 발달에 따른 전시의 변화

(1) 제2기(1995년-1997년)

개관 8년후 인 1995년 3·1운동관의 재개관을 시작으로 년

차적으로 리노베이션 작업을 시행하였다. 제2시기의 특징은 첨단영상매체와 체험형전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10개관 이후 독립기념관의 전시방법에 대해 전시내용이 어렵거나, 정적이다, 첨단영상기법이 부족하다 등의 비판을 고려해서 영상매체도입과 체험형시설 그리고 동작이 이루어지는 모형 등의 매체보완이 이루어지다보니 전체적인 동선 또는 공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도입부의 권위적인 상징조형물이나 교과서적 나열전시는 개관시점과 별 차이가 없다.

(2) 제3기(1999년-2004년)

개관10주년이후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 독립전쟁관을 시작 2004년까지 4개관이 재개관하게 된다. 제3시기의 변화는 전시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우선 사회문화운동관이 독립전쟁관에서 한 개의 관으로 분리되어 사회문화운동관(제6전시관)이 되고 제6전시관의 임시정부관이 제7전시관으로 이관되면서 정치적 논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군사정권시기의 전시내용이 삭제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관(제7전시관)으로 통합되게 된다.

<표 9> 전시매체발달에 의한 전시기법의 변화

시기	제1기(1987년)	제2기(1995년-1997년)	제3기(1999년-2004년)
전시방법	-평면적전시	-입체적전시	-공간적전시
세부내용	-유물전시 -패널전시 -모형전시	-유물전시 -(특수)영상전시 -단일매체전시(보조수단) -체험전시(hands-on)도입	-복합전시(패키지전시) -재현전시(대형화) -감성전시(feels-on)
공간변화	-권위적 상징성부여 -나열식전시(교과서적 흐름) -내용중심(Text의 어려움) -자유동선(선택동선/산만함)	-권위적 상징성유지 -교과서적 흐름유지 -홍미매체로 시각효과유도 -자유동선+강제동선	-강제동선(집중도 향상) -바닥높낮이의 변화 -전시의 강·약조절 -공간활용도 높아짐

이 시기의 특징은 전시방법이 공간적전시, 즉 바닥,벽체,천장 등 제약 없이 공간을 전시영역으로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새로운 시간여행을 제공하므로 오감적 체험을 통한 전시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시방법과 엑스포적인 Pre-Show의 개념이 도입되게 된다. 또한 단일매체 보다는 복합전시(영상, 패널, 유물전시 등)가 이루어져 시각적효과를 주고 있으며, 권위적인 상징조형물이 후면으로 이동하고, 현재적인 감각을 살린 구조물들이 도입부에 전진 배치되게 된다. 이런 구조물들은 전시내용과 부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표 9>

(3) 체험전시의 도입

독립기념관의 전시관 중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제3전시관(일제침략관)이다. 2001년 12월 독립기념관에서 실시

10) 독립기념관 10년사, 독립기념관, 1997, p.262

한 11)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람 후 가장 인상에 남는 전시물로 일제침략관의 고문체험의 장을 뽑았다. 이런 체험시설의 변화는 제4전시관의 전시교체작업 후 보완이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후 제3전시관의 보완작업은 동적이며 '체험'적인 전시방법으로 계획하게 되었고 이 후 대형디오라마세트나 체험전시로 대폭 리노베이션한 결과 관람객의 12) 입장수도 달라지게 된다. 2004년 마지막 전시교체보완 작업을 진행한 민족전통관(제1전시관)의 후반부에는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게 된다. 1996년 '체험'적 전시방법을 도입하여 재개관한 제3전시관의 드라마틱한 실사이즈모형과 고문체험 등이 2005년인 현재까지도 인기가 있는 것은 관람객들이 입체, 체험위주의 전시물에 흥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전시디자인 수준이 높아지고 관람자들의 전시에 대한 안목과 이해가 높아질수록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되어 질 것이다.

#### (4) 전시내용에 따른 공간변화

전시내용에 의해 발생한 공간변화는 제6전시관과 제7전시관이 대표적이다. 개관 당시 제6전시관의 전시내용인 '임시정부' 관련 내용이 2002년 재개관된 제7전시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독립전쟁관의 '사회문화운동'부분을 2001년 사회문화운동관(제6전시관)으로 개편하여 개관하게 된다. 이에 따른 공간변화는 문화공간의 발생이다. 제6전시관에는 '카페테리아'가 제7전시관에는 기획전시실과 정보검색실이 설치된다. 이는 시대적 흐름으로서 공공박물관(Public Space)이 단순 전시기능이외에 휴식공간, 교육공간, 문화공간으로 복합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6전시관만의 휴게공간은 전체관의 관람객을 수용하기는 위치 및 거리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향후 전시계획 시 각 관별 휴게영역들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본다.

### 3.2. 사회적요인에 따른 전시의 변화

#### (1) 정치적측면의 변화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제7전시관이다. 독립기념관의 건립 당시 전시의 범위를 운양호사건이후부터 광복까지로 설정한 것은 앞부분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사후반부에 제7전시관이 급하게 준비되면서 전시내용의 범위를 '임시정부부터 통일염원까지'로 연장하게 된다. 그러나 임시정부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새마을운동이나 한강개발 등의 정부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재개관시

11) 2001. 11.1-11.15까지 총 20문항을 남녀 2,025명에게 설문조사함. 관람 후 가장 인상적인 전시물에 대해서는 일제침략관(23.7%), 특히 고문체험의 장이 가장 높은 대답을 했고, 민족전통관의 거북선(13.4%)과 임시정부관의 임정요인밀랍인형(9.6%)로 응답했다.

12) 1987년(662만명), 1988년(424만명) 이후 관람객의 수는 급격히 감소되어 90년대에는 100만명이 겨우 넘게된다. 2000년(108만명), 2001년(94만명), 2003년(100만명), 2004년(90만명)으로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전시교체보완과 각종 이벤트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110만명)을 기대하고 있다.

에는 6·25전쟁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정치적(?)내용들이 없어지고 순수하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상만을 주 내용으로 전시하게 된다. 과연 이 부분들이 왜 빠지게 되었을까?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정부는 교체예정인 제7전시관의 후반내용인 '군사정권시기의 발전상'을 독립기념관과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로 삭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민족주의적측면의 변화

독립기념관의 관람객 변화추이는 사회현상 즉, 민족주의적측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 건립의 타당성을 만들어준 것이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었다. 2005년 또한 역사왜곡사건, 독도문제 등으로 관람객수가 1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민족주의적 측면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5년은 광복60주년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더불어 청소년 역사체험공간운영, 태극기동산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 더불어 천안까지의 전철복선화로 접근성이 편리한 것과 주5일근무제 등도 관람객증가의 일익을 담당했다.

### 4. 결론 및 제언

21세기의 박물관은 대중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독립기념관도 민족의 '거룩한 성소'에서 '재미있는 역사교육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시대적 흐름 앞에 놓여있는 것 같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독립기념관이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곳이라 자료 및 인터뷰요청이 어려워 공식적인 배포가 가능한 문헌자료에 의존해야 했다. 이런 점은 지속적인 연구에 걸림돌이 되므로 향후 성공적인 전시계획을 위해 다양한 자료의 공유가 쉽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 독립기념관 전시변화의 결론을 살펴보면,

첫째, 독립기념관을 통해서 본 전시매체변화는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인 80년대는 진열위주의 평면적 전시매체 활용이 두드러지며, 제2기인 1990년대 중반은 체험요소를 가미한 입체적전시가 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90년후반과 2000년대의 제3기는 공간적 전시방법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방법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타 전시관의 연출방향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독립기념관도 다른 박물관처럼 체험형 전시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제3전시관의 경우는 1987년 개관 이래 현재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전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관람객들은 사실적인 전시내용전달에 있어서 단순 패널전시보다는 체험형의 전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독립기념관은 특수한 목적의 박물관으로서 사회이슈에 따라 관람객수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 교과서왜곡사건, 독도문제 등의 사회문제마다 독립기념관을 찾는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꾸준한 관람객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전략과 13)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독립기념관의 전시공간변화는 전시매체발달, 사회적요구, 이외에 정치적논리에 의한 변화도 파악할 수 있다. 박물관은 이데올로기적인 담론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관리자나 운영자측면보다는 수요자인 관람자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1년 설문조사에도 관람객들은 독립기념관이 단순전시관에서 벗어나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14)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굳이 이데올로기를 앞장세우지 않더라도, 관람객들은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독립기념관 전시교체보완기본계획서, 독립기념관, 1984
2. 독립기념관 전시교체보완기본계획서, 독립기념관, 1991
3. 독립기념관 건립사, 독립기념관, 1988
4. 독립기념관 10년사, 독립기념관, 1997
5. 서상우,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4
6. 권순관, 테마파크의 개념과 전시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전시디자인학회 Vol.1, 2004
7. 최중호, 박물관의 이론과 실제, 한국박물관협회, 2004
8. 세계일보, 2005. 8월11일자 기사내용
9. 뉴스와이어, 2005. 11.8일자 기사내용
10. 동아일보, 2005. 5. 19일자 기사내용
11.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분석, 2005
12. 독립기념관, 운영실태를 위한 설문조사, 2001
13. Nobuhiro Takahashi, Museums and Amusement Park, 1992

<접수 : 2006. 8. 30>

13)2005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독립기념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중 관람객 유치를 위한 방안제시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체험형프로그램, 축제 및 영화상영 등의 참여형 볼거리) 및 홍보강화를 요구했다. / 2005.6.21-6.30(10일간)에 실시한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설문방법

14)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국민정신교육도장(45.7%), 복합문화공간(28.2%), 청소년교육장(18.4%) 그리고 성역(참배장소)화장소(7.8%)로 구분되었다.